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84



Colors, Future!

いろいろって、未来。

川崎市

편집 · 발행 : 시민문화국 시민생활부 다문화공생추진과 2026 년 2 월 28 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알기쉬운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2025 인터내셔널 · 페스티벌 in 가와사키>에 참가했습니다

11 월 9 일(일), 개최된 2025 인터내셔널 · 페스티벌 in 가와사키에 외국인대표자회의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일은 20 개국 이상의 나라 · 지역과 관련된 약 80 개의 단체가 무대 · 전시 · 교류체험 · 지역 특산품 · 상담코너 등을 기획하고 분위기를 돋우며, 약 4 천명의 방문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대표자회의는 활동 전시 코너에서 우리 대표자회의를 P R 하고, 리셉션 룸 스테이지에서는 퀴즈대회를 하며 참가자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와사키 시민마츠리>에 참가했습니다

11 월 1 일(토)~3 일(일 · 공휴일)에 개최된 제 46 회 가와사키 시민마츠리 첫째 날에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표자회의는 후지쯔스타디움 안에 설치된 텐트에서 우리 대표자들 나라에 관한 퀴즈, 과자 룰렛게임, 풍선 배부, 국기그리기를 참가자들과 함께 하며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회의 참여를 위한 전단지도 배부하며 우리 대표자회의를 PR 했습니다.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5 년도 오픈회의가 11 월 16 일(일),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30 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14 시부터 17 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2 개의 분과회로 나뉘어 제 15 기의 제언 후보로 정한 「유아교육・교육」「정보발신・주지」「방재・재해」 이와 같이 3 개의 제언(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과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는 분과회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날 코멘테이터로 모신 리쿄대학 가도 미유키 특임준교수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양케이트와 의견은「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쁘게 느꼈어요. 다음에도 참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여러가지 유익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다문화공생에 공헌되는 행정과 지역커뮤니티 교류, 협력하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오늘 회의에 관해 준비된 자료도 없고, 말할 내용도 무엇을 논해야 할지 참가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다수결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면 참가자들이 의논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등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류회도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얻은 귀중한 의견과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앞으로의 심의에 살려, 남아 있는 회의에서 제언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5 기 조사심의 보고

다문화사회부회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시정 검토를 위해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 생활지원에 관해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참가자 분들로부터 다양한 시점에서 활발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더 알기 쉽고 실용적인 방법을 위해 구체적인 제언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분들로부터 얻은 피드 백을 통해 당초 안건에 대한 개선점과 새로운 시점도 다수 있어 상당히 유익한 의견 교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얻은 귀중한 의견을 참고로 더욱 실효성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픈회의 개최 당시) 부회장 아디다야 요자

다문화사회부회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해 오픈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보 내용과 공유 방법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실용적인 제언 작성을 하겠습니다.

(오픈회의 개최 당시) 부부회장 정재훈

안심생활부회

안심생활부회에서는 방재·재해에 있어, 시직원과 피난소 운영자 대상과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제언안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의 것을 통합시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 대표자회의 OB 와 일반시민들로부터 얻은 귀중한 의견과 코멘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새겨 듣고 반드시 외국인시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언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회장 산 보쵸

지금까지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오픈회의에서는 일반 참가자로부터 전혀 다른 의견들이 나와 새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부부회장 김수영

제 15 기 대표자 모국의 문화 소개

부모를 자식이 보살피 주는 네팔 전통

네팔의 가족제도는 깊은 정서를 토대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피 주는 것은 단순히 의무에서가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 전통으로 인해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깊게 하고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며 세대를 넘어 애정, 배려심, 책임감을 가지는 문화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외동이나 장남이 이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애정과 희생으로 키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보살피 주는 것이 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로 인정됩니다. 포카렐 나라얀

브라질의 미신 : 유니크한 습관

브라질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독특한 미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중에 빗자루로 발을 쓸게 되면 결혼을 못하게 된다, 슬리퍼를 거꾸로 놓으면 엄마가 돌아가신다 등이 있습니다. 나무를 3 번 두드리면 불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빨리 돌려 보내고 싶을 때는 청소용 빗자루를 현관문 뒷쪽에 세워두면 그 방문객이 가버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핸드백을 바닥에 두면 돈이 안 모인다고 믿고 있어, 핸드백은 꼭 테이블과 의자 위에 두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미신은 브라질 문화 속에 아직도 소중히 남아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흥미 깊은 문화의 일면을 알게 되면 멀리 있는 브라질도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가마타 화치마

중국의 인기 수타면 : 란저우 우육면

란저우 우육면은 중국 간쑤성 · 란저우가 시초인 전통적인 면 요리입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소고기 국물은 깊은 맛이 있고, 고수, 마늘, 무, 라유가 들어가 절묘한 맛을 냅니다. 시내에는 우육면 전문집이 많고 대부분의 가게는 이른 아침 5 시부터 영업을 합니다. 당일 첫 번째로 끓인 육수가 가장 맛있다고 하며, 란저우 시민들에게 있어 우육면은 아침식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면 기술자가 손으로 뽑은 면은 굵기와 모양이 만들어 지고 쫄깃한 면발의 식감이 육수와 잘 어울립니다.

우육면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소박하면서 깊은 맛이 있어 많은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 요

< 문의처 >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시민생활부 다문화공생추진과
〒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Tel : 044-200-2846 Fax : 044-200-3707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 및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이는 현종이 펄프 배합률 7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